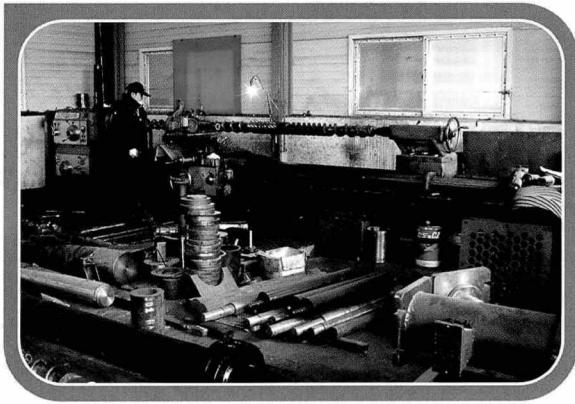


금성산업(주)

감용기 구입과 잉고트 판매처 한번에 해결



▲ 금성산업(주) 공장전경



금성산업(대표 신용수)은 스티로폴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잉고트 생산자의 입장에서 서서 감용기 구입비용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잉고트 판매처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영업방식을 통해 감용기를 생산 보급하고 있다.

잉고트와 펠릿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인 금성산업은 감용기 생산 및 판매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업체로 하여금 감용기 구입대금을 잉고트 입고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.

또한 업체 사업장 조건에 맞는 기계의 주문 제작이 가능하고 감용기 판매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작업지도 등을 통해 기계가동이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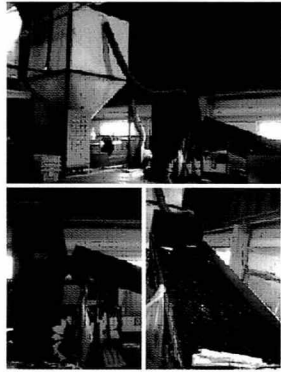
토록 배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잉고트 납품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해주고 있다.

스티로폴 재생산업의 활성화로 잉고트 확보 경쟁과 재활용업체의 기술적인 의뢰와 요청이 많아지기 시작한 2000년, 금성산업은 스티로폴 재생원료 생산업체에서 감용기 생산업체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계획하고 기술개발과 투자로 본격적인 감용기제조 및 판매 사업을 진행 하였다.

금성산업에서 생산하는 감용기 특징은 다년간의 잉고트 생산경험을 토대로 유지 및 관리 조작성이 간단하며 장비가격이 저렴하고 각 재활용업체 실정에 맞게 50~500kg/hr 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사업장내에 설치 할 수 있게 하였다. 금성산업은 스티로폴 감용기를 월평균 5~8대 생산하여 현재까지 스티로폴 재활용 업체에 약 90여대를 공급하고 있다.

현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에 위치한 금성산업은 1993년에 합성수지 및 재생섬유 생산으로 출발한 금성기업을 모태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숙련된 기술력과 축적된 제조 능력으로 재생원료인 펠릿을 월 600t 이상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에 재생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당 협회의 발포합성수지 재활용 지정업체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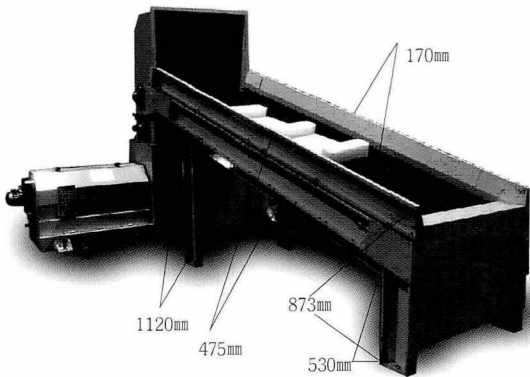
• 전화 031) 942-3405~6



모델명 : GSK-1

처리용량: 350~500kg/h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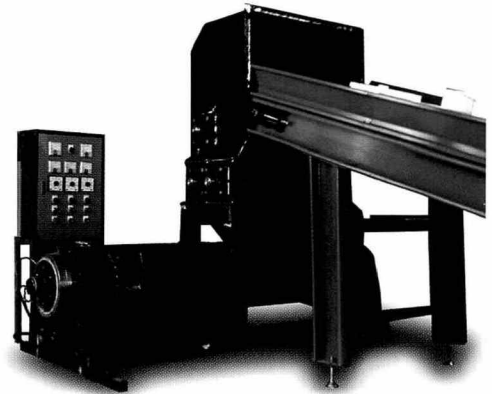
대용량 처리 능력이 우수하고 동작이 간단하며 저가의 유지비로 처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좋은 품질을 생산



모델명 : GSK-2

처리용량: 150~250kg/hr

설치공간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



모델명 : GSL-3

처리용량: 100~200kg/hr

작은 용량으로 재활용 작업장이나 혼자 작업이 가능한 기능

모델명 : GSP-1

처리용량: 80~150kg/hr

PSP, EPS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기계로서 관공서, 군부대에 적합한 기계

